



중구 건가다가 센터 알림



운영시간 안내

센터 운영
평 일 09:00~18:00 / 야간운영 매주(금) 18:00~21:00
주 말 09:00~18:00 / 야간운영 매주 토요일 10:00~17:00

영중분소 운영
평 일 09:00~18:00 / 야간운영 매주(수,금) 18:00~20:00
주 말 09:00~18:00 / 야간운영 매주 토요일 10:00~1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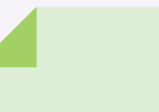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시간(가족품앗이 그룹활동 수시운영)

[신흥 공동육아나눔터]
평 일 10:00~18:00 / 야간운영 매주(화,목) 18:00~20:00
주 말 09:00~18:00 / 야간운영 매주 토요일 10:00~17:00 ☎ 032-330-9570

[운서 공동육아나눔터]
평 일 10:00~18:00 / 야간운영 매주(월,목) 18:00~20:00
주 말 09:00~18:00 / 야간운영 매주 토요일 10:00~17:00 ☎ 032-763-4822

[운남 공동육아나눔터]
평 일 10:00~18:00 / 야간운영 매주(수,금) 18:00~20:00
주 말 09:00~18:00 / 야간운영 매주 토요일 10:00~17:00 ☎ 032-752-2722

[중산 공동육아나눔터]
평 일 10:00~18:00 / 야간운영 매일(월~금) 18:00~20:00
주 말 09:00~18:00 / 야간운영 매주 토요일 10:00~17:00 ☎ 070-4550-7073



상시 프로그램 안내

Table with 2 columns: 프로그램, 이용방법. Lists various services like family counseling, language classes, and support groups.

인천광역시 중구 답동로 23 천주교 인천교구 사회복지센터 3층 ☎ 763-9337 (1577-9337)
·건강가정지원센터 http://icjung.familynet.or.kr ·다문화가족지원센터 http://incheonjunggu.livinkorea.kr



다음 분기 계획

Table with 6 columns: 사업 영역, 프로그램명, 대상, 일시, 장소, 내용. Details upcoming programs for family, community, and regional grou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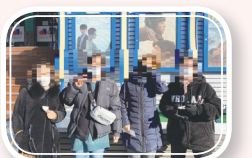
지난 분기 소식



재혼가족프로그램 Hero and Heroine

10월 29일(목) - 11월 13일(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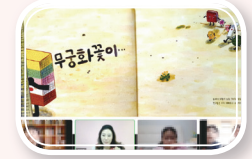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어디까지... 하는 재혼가족들을 위해 드라마치료기 진행되었습니다.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자조모임

11월 25일(수), 28일(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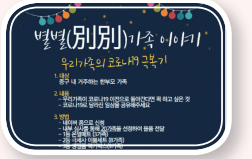
올해 마지막 자조모임은 평일과 주말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자들은 영화 '이웃사촌'을 함께 관람하며 웃고 웃었습니다.



코로나프로젝트 한뼘, 동화

10월 24일(토) - 11월 14일(토)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운 부모, 자녀(5세~11세)를 대상으로 그림책 놀이를 온라인(ZOOM)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프로젝트 별별가족 이야기

11월 13일(금) - 11월 20일(금)

우리 가족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꼭 하고 싶은 일과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일상 사연을 주제로 공모전을 진행하였습니다.



노년기교육 "레트로(Retro), 영화 속 추억여행"

11월 23일(월), 30일(월)

11월 23일(월) 10:30~12:30 진행된 노년기교육 프로그램(레트로Retro), 영화 속 추억여행을 '영화로 바라보는 인문학'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신규 아이돌보미 실습 및 기존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완료

10월 ~ 12월

9월 양성교육을 수료한 신규 아이돌보미 10명이 실습까지 모두 완료하여 영중·용유지역의 돌봄을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소속되어 있던 아이돌보미 55명은 온라인으로 [영어]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가족 공감 토요일프로그램 가족 사진 콘테스트

9월 28일(월) - 10월 6일(화)

공동육아나눔터에서 '건강하고 평등한 한가위'라는 주제로 가족 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하였습니다.



열정 놀이터

10월 ~ 11월 상시

올해 하반기 다문화 및 바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영화라는 매개체를 통해 건강한 여가생활 및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열정놀이터'를 진행했습니다.



결혼이민자 일자리 연계사업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

11월 12일(목), 19일(목), 26일(목)

다문화지원팀은 지난 11월, 3일에 걸쳐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무지개유치원 원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바리스타 양성사업 수료식 및 월례회의

10월 29일(목)

하반기 바리스타 양성사업 수료식 및 월례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취득한 교육생들이 심화(전문가)교육을 통하여 바리스타로서의 전문성과 카페운영에 대한 실천경험을 학습하였습니다.

함께 만들고 함께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

인천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온라인 브레인 서바이벌!!」

코로나19로 소원해진 가족관계를 개선하고 다양한 가족이 교류할 수 있는 가족친화문화프로그램 [가족운동회] '온라인 브레인 서바이벌'을 진행하였습니다.



- 1 중구 건가다가 베스트 컷 2 센터를 소개합니다: '찾아가는 상담' 3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2020년 센터를 빛내준 신재능기부자' 4 이용자 참여후기 5 지난 분기 소식 6 다음 분기 계획 7 중구 건가다가 센터 알림

찾아가는 상담



2021년에도 중구 지역 직장인들과 영종도서 지역 학생들이 쉽게 상담을 접할 수 있도록 가족지원팀이 찾아가겠습니다.

찾아가는 상담을 계획하게 된 이유가 알고 싶어요.

-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상담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졌지만 아직 상담이 뭔지 잘 모르거나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어요.
- 시간·공간적 제약으로 참여가 어려운 직장인과 영종·용유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상담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찾아가는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 직장인은 직무 스트레스 감소와 심리 문제 해결을 위해 총 9회(9. 24.~12. 3.)의 개인 상담 및 심리검사를 진행했습니다.
- 초등학생은 총 4회(9. 22.~10. 13.)의 학급별 집단 미술치료 상담을 통해 또래관계 개선을 돕고 자존감을 향상하도록 했습니다.
- 초등학생 대상 모래놀이치료 상담은 1:1로 총 6회(11. 2.-12. 11.) 진행하여 자유롭게 감정을 발산하고 무의식을 표현함으로써 자아가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2020년 센터를 빛내주신 재능기부자

- | | | |
|---|---|---|
| 
한혜숙
프로그램
아주나 봉사단 | 
김해란
프로그램
조아해 봉사단 | 
신영림
프로그램
바람의 회원 |
| 
문상희
프로그램
자조모임 | 
주봉희
프로그램
음악교실 | 
박주현
프로그램
음악이 있는 언니네 공부방 |
| 
강민경
프로그램
동요로 세계일주 | 
이소은
프로그램
동요로 세계일주 | 
김미애
프로그램
엄마표 수학놀이 |
| 
김희정
프로그램
사랑방 손뜨개 교실 | 
김현정
프로그램
보드워 세상 | 
이승미
프로그램
보드워 세상 |
| 
황소연
프로그램
보드워 세상 | 
김유화
프로그램
원예놀이 | 
박은영
프로그램
그림책 놀이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우수수기 공모전 우수상 수상작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김현정 님

“내 삶의 원동력, 공동육아나눔터”

신앙을 따라 연고도 없는 영종으로 들어와 첫째를 낳고, 계획에도 없던 둘째 출산 후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우연하게 공동육아나눔터를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다문화가정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선뜻 내키진 않았지만 가까운 거리에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방편하게 되었던 것이 벌써 3년전 일입니다. 지난 3년을 돌아보면 내 인생에서 정말 이런 일이 있었나할 정도로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까칠하고 이기적이었던 제가 ‘공동육아나눔터 자녀돌봄품앗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과 마주한다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공동육아나눔터 선생님들과 편하게 대해 주는 이용자들 덕분에 매주 기다려지고 설렘이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를 처음 이용할 때 기어 다니던 둘째가 걸음마를 시작하고 잘 걷게 되었을 무렵 품앗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담당선생님께 문의를 하고 얼마 후에 둘째 또래 품앗이인 '꼬꼬닥' 모임이 생겼습니다. 늦은 결혼과 출산으로 육아와 정보 공유의 통로가 없었던 저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였던 육아를 품앗이를 통해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초등 입학에 앞두고 있는 첫째를 위해 가베와 보드게임 품앗이인 '말셋양하나'와 두 가정의 세 명의 아이가 직접 베이킹을 해보며 성취감, 자신감 회복하는 품앗이인 '미끄마끄뽕집'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세 품앗이 모두 혼자라면 절대 해낼 수 없는, 감히 할 엄두도 못 냈을 일들을 해내며 아이들은 물론 저 또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할 길이 없던 저에게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결혼을 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그만두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복직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밤엔 일하라 낮엔 잠자라 바쁜 생활은 자는 얼굴밖에 볼 수 없고, 밤낮없이 울어대는 아이와 하루 종일 씨름하며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제 옆엔 징징거리는 애가 돌고, 여전히 자는 모습만 보여주는 신랑이 있었습니다. 쉬면 좋아질 거라 했던 몸 상태는 두 번의 임신과 출산으로 회복할 길이 없어 보이고, 복직은 먼 이야기 같고, 길고 긴 독박육아로 앞으로의 제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공동육아나눔터에서 보드게임지도사 강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시작하게 된 것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사회복지사를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저의 앞길에 길잡이가 되어 준 셈이었습니다. 지금은 중산공동육아나눔터 초등돌봄에서 보드게임 수업을 진행하며 경험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저밖에 모르던 제가 타인과 마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윤남공동육아나눔터에서 다누리 강의를 들으며 그림책을 통해 타인과 마음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림책도 좋지만 강의 시간의 그 느낌이 너무 좋아 윤남공동육아나눔터 자조모임인 '그림책산책'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타인과 친해지는 방법을 잘 몰랐던 저에게 처음이 너무 어려웠지만 좋으신 분들과 함께해서인지 어려움은 친숙함으로, 불편함은 편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껏 실며 친정엄마에게도 제 속내를 내비치지 않았던 제가 그림책 이야기를 하며 타인에게 제 속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 저조차도 매우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현재 온라인강의를 통한 그림책 지도사 자격증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림책을 통해 제가 느낀 이 변화를 많은 사람들도 경험해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 저에게 또 다른 도전을 하게 해 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진심을 알게 해 준 부부상담

매우 다른 환경과 상황에서 살아온 저희 부부는 서로 너무나 달라 저는 남편을 이해하기 보다는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표현하지 못하는 불만은 쌓여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편하기에 크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과중한 업무를 맡게 되기 전까지 말입니다. 회사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한 불만이 집안에서 터지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잦은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설득 끝에 부부상담을 시작하였습니다. 상담을 받으며 결혼 8년 동안 제가 남편의 마음을 몰라주었구나, 알려고 시도조차 안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상담 후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전 저 혼자만 기대하지 않고 살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다는 생각이 아팠습니다. 몇 차례 상담을 진행하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중단되었지만 저희가 함께한 상담은 꽤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며 앞으로 저희 부부가 살아가는데 기준이 되어 주리라 믿습니다. 상담을 통해 남편도 저도 서로가 참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 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계획들이 무산되었고, 많은 이들이 불편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 또한 마음 편히 집 앞 놀이터조차 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공동육아나눔터 마저 없었다면 당장 나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비록 공동육아나눔터는 현재 이용할 수 없지만 비대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아이들은 직·간접적으로 배우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너무 좋아하는 '원예치료 프로그램', 하루나마타타를 목청껏 따라 불렀던 '동요로세계여행', 가족의 소중함을 배운 '가족사진콘서트', 소방관 아저씨의 고마움과 화재의 위험성을 배운 '우리가족안전지킴이', 많은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아빠와의 소중한 시간을 찾아준 '책 읽어주는 아빠' 등 소소한 일상까지 꼼꼼하게 챙겨주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